

## 세계 우병학회 참석기



발안 종합동물병원 원장 / 이병전

인천공항 활주로를 LH 713편이 서서히 기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에게는 3번째의 독일행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맨처음 1985년 유학 비자를 손에 들고 무작정 독일로 향했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필자가 제 22차 WBC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 하노버를 다시 찾는 기분은 남다르다. 16년전 독일 하노버 수의과대학의 Rinder Clinic Director 인 Stover 교수(cattle of examination의 저자)를 만날 수 있었고, 30년 이상 牛전문 병원에서 근무하신 노교수의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모름지기 임상가의 참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아침 7시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노교수가 한 마리, 한 마리 직접 직장검사, 타진, 청진등을 통해 환축을 검진하고, 이에 옆에서 열심히 받아적는 10여명의 회진팀의 긴장된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매료되어 환축방을 회진하던 기억. 200여가지 항목을 체크할수 있는 환축 기록카드, 질병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제공해주는 산교과서였던 것이다.

필자가 그 당시 십수년을 대동물 임상가로 임상을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에 접할때마다 수많은 시행 착오 속에서 하나하나 터득하며 배워왔던 일들을 이 곳 독일 수의과대학에서는 완벽한 교육과 실습으로 임상기술훈을 터득한 의사를 배출시키고 있던 것이었다. 이것이 그당시 나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와 닿았다.

연구실 사면벽이 슬라이드 서랍장으로 가득채워지고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시설, 슬라이드, 직접적인 임상전수등 모든 것이 뛰어난 임상수의사를 배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牛병원, 馬병원, 牛산과 병원, 소동물, 중동물 병원, 이 5개의 병원이 깊은 역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으며 수의과 학생들은 이 병원들을 일정기간 차례로 순회 실습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질병들에 접하면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의 기술을 전수 받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6년제로 개편된 이래 수의과 대학의 모습이 차츰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필자가 세계 우병학회(WBA)에 대해서 앞으로 참석할 분들을 위해서 회고담을 조금 더 하고자 한다.

필자가 세계 우병학회에 최초로 참여하기는 1988년도 제 15차 스페인, Palma, de Mallorca 섬에서(유럽인이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휴양지) 개최된 때였다.



[그림1] 제15차 스페인 WBA 개최식(맨왼쪽 태극기)

그 당시 세계우병학회 Secretary 인 Stover 지도 교수의 권유로 제15차 세계 우병학회에 한국 수의사로 처음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 회의장 등록을 마치고 세계 우병 학회 회원이 되어 Congress장에 서니 태극기가 게양되어 각 참가국 국기와 나란히 함께 펄럭이고 있었다. 그 당시처럼 우리 태극기의 문양과 색감이 그리도 선명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그 동안 좁은 공간 병원에서 전화만 받으며 언제나 마음 고생 만하던 wife는 Congress 기간 내 학회여행일정 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동반자들과 사귀고 지냈고) 한복(색동옷)을 입고 final party(정장차림뽕) 장에 우리가 입장하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며 한복의 우아함 과 색감에 매료되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좋아하던 모습들 한복의 아름다움을 유럽에서 다시 발견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대회 집행부 회의에서 필자를 세계 우병학회 통신원으로 선정하고 나는 이때부터 세계우병학회와 우리나라 학회와의 연결을 위해 한국 우병학회가 창립되기까지 모든 연락과 연결을 맡아왔었다. 이때가 한국임상학회 초창기로 2대 회장에서부터 여러 대를 거쳐 세계우병학회와 관계를 맺기를 수차례 권유했었으나 번번히 예산과 학회의 미미한 준비관계로 뒤로 미루어져 오다 뒤늦게나마 서울대 한홍률교수를 비롯 몇몇 여러분들의 노고로 한국 우병학회가 발족되고 지금은 100여명의 회원과 6년여의 연륜으로 성장하며 매 세계 우병학회 대회마다 5~6명씩 참석하며 학문교류를 가지게 되었으니(이번 22차 하노버대회 6명 참석, 13편 논문발표) 우병학회에 대한 남다른 감회와 애정이 깊어진다.

그 뒤 16차(1990년) WBC는 Salvador, Brazil에서 개최되었고 나 혼자라도 명맥을 이어가고자 미국 마이애미를 거쳐 40여시간 비행 끝에 지구 정 반대쪽 Brazil Salvador를 찾아가서 아래와 같은 논문제목으로 세계 우병학회 발표장에서 발표하게 되었다.(OP)

“A study on leptospiral infection of cows by blood culture and microagglutinin test of serum in a Korean Rural Area.”

필자가 세계 우병학회 학술발표장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한국 수의사로서는 처음 그리고 한국의 명예와 책임의 중압감을 한몸으로 느끼며 당당히 발표하며 질문에 응했던 기억은 지금도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 바친 정열과 시간들 힘든 작업이었지만 지구 저 반대쪽 브라질까지 찾아가서 그곳 교민들과 우정을 맺고 십 수년이 지난 지금도 우정을 나누고 있으며 그때의 리오의 아름다운 해변의 모래밭과 비취빛 해변, 예수상, 그리고 웅장하다 못해 경외로운 이과수 폭포의 굉음 이러한 추억들이 힘든 일상에서 늘 풍요로움으로 많은 것을 선사함을 실감하면서 회상하곤 한다.

이번 하노버 세계 우병학회는 제 22차 대회로 1회 창립 총회가 이 도시에서 개최된지 꼭 44년 만에 성년이 된 모습으로 다시 하노버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 또한 크다.



[그림2] 독일 Hannover 대회에 참석한 우리회원들

이번 하노버의 컨벤션 센타 국제학술회의장은 규모나 운영면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학회 일정이었고, 필자는 19일 아침 일찍 등록처에서 전남대 강문일 학장과 등록을 마치고 우린 논문 포스터 발표 장소에 가서 지정된 구획에 논문 포스터를 걸고 A-G session까지의 주제별 강의장에서 각 분야의 전문 강의를 들을수 있었다. 낮 강의시간에는 만나기가 어려웠던 한홍률, 김두, 이경갑 교수, 검역원 박지용

선생등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수의과 대학을 돌아보기 위해 먼저 떠났던 분들과 우리는 저녁 개회식장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다.

독일 하노버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지에서 소동물 개업한 이상곤 박사등 한국인 11명이 세계 우병학회 개회식에 함께 모여 자축하니 감개 무량하였다.

그 동안 몇 차례 세계 우병학회에서 수 십 명씩 모여있는 일본 수의사를 얼마나 부러워했던지.....

초라했던 지난날들이 함께모인 한국 수의사들의 맥주잔속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이번 세계우병학회 총 논문 포스터는 646편, 특별강좌 및 발표논문 170여편과 12대주제의 심도 깊은 워크숍등 牛의 전반적인 질병과 이에 관계되는 위생, 동물복지, 국민건강 문제, 유방염을 위시한 각종 감염병, 영양, 생식, 생리해부, 기생충 등 전 분야가 망라된 다채로운 논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 발표되었다. 자세한 것은 우병학회 뉴스레터 및 앞으로 기회를 통해 공개되리라 믿는다.



[그림3] 필자의 시상식 판경


바쁜 강의와 견학이 계속되고, 학회 마지막날 점심시간 B.S.E강좌를 늦게까지 듣고 식당 부스에 들어서니 본부식에서 필자를 찾는다는 방송이 계속된다는 전갈을 받았다. 필자의 논문이 Infection Disease부분에서 Best one으로 선정되어 상패와 부상을 받게 된 것이다. 너무 뜻밖이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학조사와 논문 제작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더욱 고마움이 다가왔다.

원고 정리등을 마다하지 않고 일일이 정리해준 강민구 수의사를(발안종합동물 병원 근무) 비롯 전북대 미생물학 교실의 송희중 교수, 서울대 병리학 교실의 김대용 교수, 유한상 교수,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한홍률 교수, 독일의 이상곤 박사등 모든 분들에게 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 수상을 발판으로 하여 세계 우병학회 학술회의장에서 많은 후배수의사들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늘 국제 학술회의장에 들어설 때 마다 내가 어린시절 가을날 바람이 몹시불고 비가내린 새벽녘 집 뒷동산에 올라가 상수리를 줍던 일이 연상된다. 상수리 나무 밑에 알밤 상수리가 윤기가 나고 토실토실한 상태로 밤새껏 비바람에 쏟아진 것을 허겁지겁 주워담다가 바가지가 넘쳐 그냥 돌아오던 기억을 말이다.

언제나 언어 장벽, 그리고 학문의 깊이에 막혀 더 이상 주워 담지 못하고 지식의 풍요로움 속에서 허기진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아쉬움을 뒤로한채 늘 허전함을 안고 돌아오게 된다.

2년뒤의 캐나다 퀘벡 세계 우병학회를 기약하며..... **데**  **수**